

북한산 환경 영화제 <자전거 vs 자동차> 녹색생활의 실천, 자전거 타기부터!

영화소개

자전거 vs 자동차

스웨덴 | 91분 | 다큐멘터리 | 프레드릭 게르트

자동차 판매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시, 차도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도시 상파울루에서 자전거 운동가들은 극적인 변화를 도모한다. 활동가들의 끊임 없는 문제 제기와 노력 끝에 상파울루에서는 자전거 도로 신설과 확충이 결정된다.



전 세계는 지금 자전거 열풍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자전거 생산량이 자동차 생산량을 앞질렀다.

최근 자전거는 전 세계 총생산량이 연간 1억 대가량 생산되는 반면, 자동차는 4000만대에 그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자전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중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전거의 매력은 무엇일까?

탄소 발생률 0% 자전거

에너지관리공단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발생량의 약 25%는 교통부문에서 발생한다. 그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운송수단은 바로 '자동차'이다. 1km를 주행할 때마다 약 15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1년에 1만km를 운행한다고 했을 때 1.5톤을 배출하는 셈이다. 하지만 자전거는 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다. 탄소발생량 0g이다. 과연 미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 할만하다.

건강에 좋은 자전거 타기

세계보건기구(WHO)의 자전거 타기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자전거를 꾸준히 타면 심장병, 당뇨병, 비만 발병 가능성이 약 50% 감소하고, 고혈압 발생 위험도 약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운동은 관절이나 근육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유산소 운동으로, 우리 몸의 근육량을 늘리고 저체온을 막아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도록 해준다. 과체중인 사람들의 경우 달리거나 걷다 보면 관절 손상 위험이 있지만 자전거는 발목이나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손꼽힌다.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자전거'

에너지 절약, 환경 보존, 탄소 절감, 교통체증 해소, 주차 문제 해결, 건강 증진 등의 이점을 갖춘 자전거는 발명된 이래 인류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인구는 1,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지역 내 민간단체에서는 '친환경 자전거 도시'를 목표로 공공자전거 확대 및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 사업 추진, 자전거 도로 교통법 제정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자전거 공유 서비스'이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 또는 '자전거 공유 시스템(bicycle-sharing system)'은 정부나 지역 내 민간업체가 대여·반납 시스템을 갖추어 해당 지역의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는 공공 자전거 대여 제도를 말한다. 공공자전거는 외관상으로는 일반 자전거와 차이 나지 않지만, 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 각종 편의장치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전면 라이트의 전원 공급을 위해 페달을 굴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자가발전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국내의 공공자전거 대여 서비스로는 서울시의 따릉이, 경기도 고양시의 피프틴, 세종시의 어울링, 대전광역시 타슈, 경남 창원시의 누비자, 전남 여수시의 유바이크 등이 있다.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는 자전거 타기, 오늘부터 자전거를 타고 녹색생활을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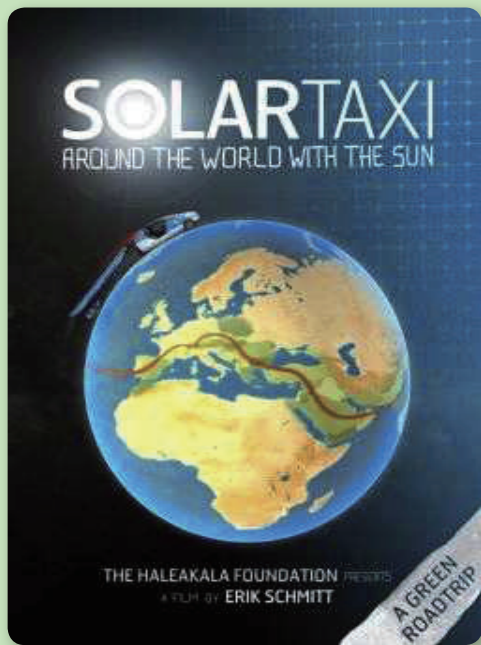
북한산 환경 영화제 〈태양광택시로 세계일주를〉 Renewable Energy



영화소개

태양광 택시로 세계일주를

76분 | 다큐멘터리 | 에릭 슈미트



에릭 슈미트 감독의 영화 '태양광 택시로 세계일주를'은 루이 팔머의 태양광 자동차를 이용한 세계 일주를 담고 있다. '솔라 택시'는 그의 어린 시절 꿈이었던 태양광 에너지로 구동되는 자동차를 현실로 구현한 것이다.

솔라 택시와 함께한 그의 세계일주는 신재생 에너지가 더 이상 '미래'의 연료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음을 잘 보여준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태양광 택시로 세계 일주를〉은 '태양광'을 이용한 자동차로 세계 일주가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까? 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원료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이다. 화석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사용범위가 넓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운수송시 기름유출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촉진 등 여러 가지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어진 양이 한정되어 있어 고갈의 문제가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끔찍한 재앙의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 부른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여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폐기물, 바이오,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이다. 그중 영화에서 소개된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에너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풍력 에너지



풍력은 바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로 초속 5m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지리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대관령 등에 설치되어 있다. 그 중 소개하고 싶은 곳은 바람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매봉산 풍력발전단지이다. 그림에서 보듯 광활한 채소밭 사이로 커다란 풍력발전기 8기가 이국적인 풍경을 보이고 있어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태양광 에너지



영화의 소재인 태양광은 일반가정(주택)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왼쪽은 주택용 태양광발전기이다. 이 발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에 3분의 1로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것은 아직 극복해야 할 문제 또한 있기 때문이다. 초기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많으며, 충전기술, 연료전지 등의 기술개발이 아직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영화에서 보듯이 태양광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관심이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깨끗한 미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보편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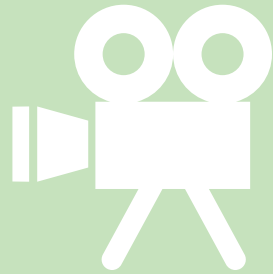
2017 북한산 환경영화제 Green Film Festival

에너녹(Enernoc) 벤치마킹 Demand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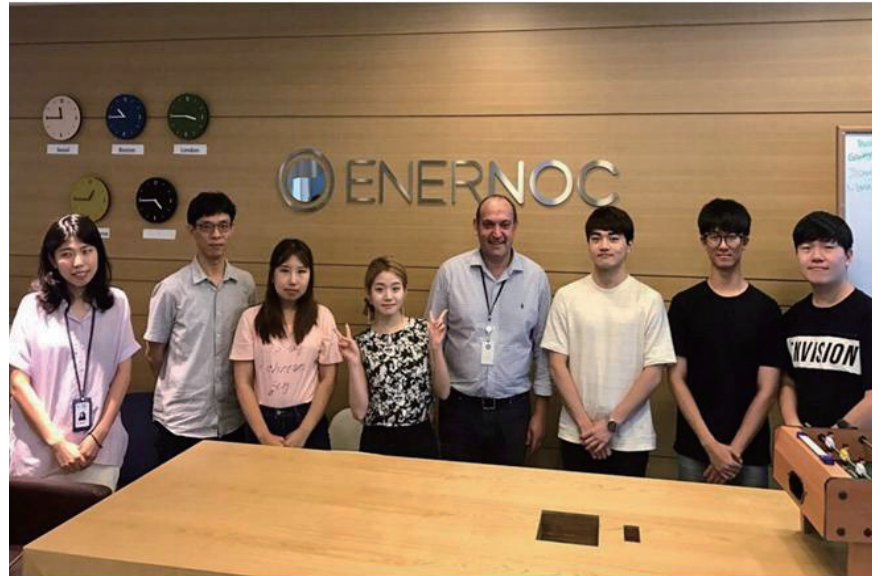


영화소개

북한산 환경 영화제



지난 7월 14일 그린캠퍼스 홍보 대사들은 환경재단 주관으로 은평구가 주최한 ‘북한산 환경 영화제’를 방문하였다. 은평구는 친환경 영화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 및 녹색 실천을 유도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의 장을 열고자 하였다. 이번에 상영된 영화는 총 4개작으로 에너지, 기후 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은 보통 여름과 겨울에 집중된다. 하지만 전력예비량은 항상 전력최고사용량을 상회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을 대비하는 데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력공급능력은 항상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훨씬 웃돌게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실상 반도 국가로 잉여 전력의 판매와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력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녹은 전력의 공급이 아닌 전력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전력예비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척했다. 에너녹은 한전으로부터 에너지 감축에 대한 보장을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그리고 감축 지시 이행을 따르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감축 지시를 지켰을 시 한전이 제시한 수수료의 일정량을 지급한다. 현재 다양한 기업과 단체가 에너녹의 회원으로서 에너지 감축지시를 이행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시설 중 고려대학교는 최초 회원으로 전력감축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에너녹은 낙센터(Network Operation Center)에서 이들 피계약자들이 감축지시를 이행하고 있는지 24시간 확인한다. 전력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 시 각 회원들에게 전력 감축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국내 필요 전력 수요량을 공급량에 맞게 감축시키고 있다.

이미 벤치창업 시장은 사업 아이템이 포화 상태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녹과 같이 기존의 생각을 뒤집는 방식으로 사업 아이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에너녹도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수요를 조절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에너녹 방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환경 친화적인 사업도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 감상평

태양광택시로 세계일주를

영화제목 그대로 태양광 택시로 전 세계를 일주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태양광택시로 세계일주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태양광이 효율적이며 의존할 수 있는 에너지임을 보여준다. 요즘에 극심한 이상 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된 요인이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에게 대체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영화라 생각한다.

자전거 vs 자동차

영화 자체만 보자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자동차는 나쁘고 자전거는 좋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와 기사들을 기반으로 관객들에게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동차가 주는 이점과 자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받는 피해와 자동차 이용의 단점들만을 나열하여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졌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자전거는 필수 불가결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장려되어야 한다. 장려책의 하나로 자전거 도로 확충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자전거 도로가 부족한 상파울루에서 자전거 도로를 지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더 많은 자전거도로가 세워지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며, 정책 결정자들이 이 영화를 관람해 보았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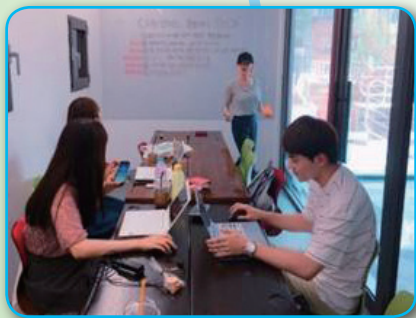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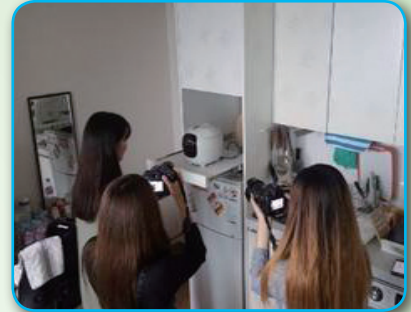




● 그린캠퍼스 환경 UCC 제작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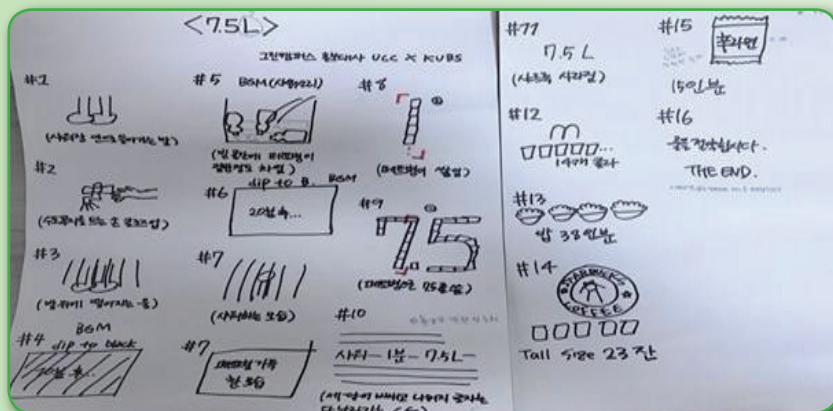


UCC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활동



그린캠퍼스 UCC를 제작하기 위해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팀원들은 영상을 기획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영상기획부터 콘티까지 모두 팀원들 모두의 노력이 일궈낸 결과물이었다.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와 KUBS 가 함께 제작한 그린캠퍼스 UCC를 성황리에 완성했다. 팀원들 모두 열심히 참여하며 제작에 힘썼던 만큼 결과물을 보고 뿌듯해하였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7.5>”라는 제목으로 찾아 볼 수 있다.



▲ UCC기획 콘티

먼저 그린캠퍼스 UCC <7.5>의 핵심 주제는 “물을 절약하자!” 이다. 물을 절약하는 문구를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대단히 고민하고 노력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쉽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흔한 방법(콘센트를 뽑기, 머그컵을 사용하기, 에코백을 들기 등)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 많은 환경 UCC에서도 있기 때문에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우리가 샤워하는 1분의 시간 동안 7.5L의 물을 사용한다.”는 메시지를 알리며 우리가 샤워하는 1분의 시간만 줄여도 7.5L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7.5L의 물이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이 담겨져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팀원들이 힘을 합쳐 영상 기획과 콘티제작 과정을 마쳤다. 영상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는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였다.



1분을 줄이면 7.5L를 아낄 수 있습니다.

▲ 그린캠퍼스 UCC <7.5> 영상 캡처





● 캠퍼스 나눔행사



▲ Facebook과 고파스에 나눔행사 홍보물로 쓰인 포스터

2017년 7월 27일 금요일,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는 중앙광장 지하와 하사스퀘어 두 곳에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 행사의 목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친환경 생활습관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 홍보대사들이 나눔 행사 진행하고 있는 모습



여름나기를 주제로 한 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여름철 냉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부채와, 학우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코백을 준비했다.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본교 학생들이 나눔 행사에 참여해 준 덕분에 준비된 에코백 150개와 부채 100개가 조기에 모두 소진되었다. 나눔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외출할 때 필요한 부채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한 그린캠퍼스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가 그린캠퍼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였다. 그러나 아직도 고려대학교의 그린캠퍼스 사업 자체를 모르는 학우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린캠퍼스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활동에 있어서 나눔 행사와 같이 일반 학우들과 홍보대사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 그린캠퍼스 아이디어 제안

나눔행사 참여자들은 물품을 받기 전 제공된〈그린캠퍼스 만들기 아이디어 제안서〉를 통해서 학교를 좀 더 친환경적인 캠퍼스로 가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눔 행사장 주변에서 많은 학우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제안된 아이디어 중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 ▶ 학교 캠퍼스 내 친환경 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 구축
- ▶ 일회용 플라스틱 컵 수거함 설치
- ▶ 화장실에 절약선이 표시된 화장지 비치
- ▶ 입실렌트·정기전 때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을 활용한 제품 만들기

●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

이름 연락처 지역 시/도 시/군/구

※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은 '실천가능'에 체크(☑)하시고, 해당 기기나 차 등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에 체크(☑)하세요.

분야	생활 수칙	CO ₂ 저감량 (kgCO ₂ /년)	실천가능	해당없음
전기	컴퓨터절전프로그램(그린터치) 사용하기	17.7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눈건강을 위한 하루 1시간 소등하기 (형광등 1개 기준)	1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용 않는 TV, 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가습기 플러그 뽑기	12.6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V 사용시간 1시간 줄이기	7.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원	종이타올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10.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수입식품 사용 10% 줄이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병, 캔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절수기기 사용 늘리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피부건강을 위해 샤워시간 줄이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교통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자동차 대신 1주일에 한번 대중교통 이용	469.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사용시간 1시간 줄이기	14.1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냉방온도 2℃ 높이기	5.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1.2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보일러 사용시간 1시간 줄이기	138.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겨울철 보일러 난방온도 2℃ 낮추기	71.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풍지 같은 단열재로 열손실 방지하기	71.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55.3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냉/난방	전기장판 사용 1시간 줄이기(내복착용하기)	2.9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의 실천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 kg			

▲ 서약서 양식

아이디어 제안서와 같이 배부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는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각각의 수칙을 실천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CO₂)의 양도 알 수 있도록 했다. 서약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활 수칙들을 모두 실천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U Green Campus 활동



●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영암유치원 방문교육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는 지난 7월 24일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영암 유치원에서 초등 환경 교육봉사를 진행하였다.

영암 유치원 측은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방학 중에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게 하고자 교육을 주최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은 분리수거, 화석에너지 사용과 지구온난화, 친환경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OX 퀴즈와 풍력 자동차 만들기로 구성하였다. OX 퀴즈의 경우 정답을 맞힌 순서대로 등수를 매겨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OX 퀴즈를 진행하는 동안 정답을 많이 못 맞추자 도중에 포기하려는 아이들도 생겼지만, 유치원 선생님들이 꾸준히 동기부여를 해줘 모두 끝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풍력자동차 만들기 실습을 진행했다. 풍력 자동차 만들기 실습은 홍보대사 1인이 4~5명의 아이들을 맡아 진행했다. 각 홍보대사는 아이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걸 보조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부연 설명을 해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친숙하게 만들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환경 보전 의식을 기르고 친환경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환경 교육을 꾸준히 받아 환경 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한다면, 우리사회가 조금 더 성숙해 질 거라고 기대된다.



▲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 SNS를 통한 홍보활동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는 지난 기수에서 새로 만든 KU Green campus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어서 관리하였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그린 캠퍼스 홍보대사가 진행하는 많은 행사들을 홍보하였다. 또한 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의 자유홍보 게시판을 통해 무료 나눔 행사 홍보, 그린레터지, 환경 뉴스 기사를 주기적으로 게시해 많은 학생들에게 그린캠퍼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 Facebook 나눔행사 홍보

● 그린캠퍼스 제휴 카페



고려대학교에는 그린캠퍼스와 제휴를 맺은 카페가 4곳이 존재한다. 하나과학관에 위치하고 있는 1호점 'Marrone', 중앙광장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2호점 'Ti-amo', 미디어관 옆 골목에 위치해 있는 3호점 'Maggiore', 마지막으로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해 있는 4호점 'Orgo'가 있다. 이 4곳의 카페는 일회용 컵 대신에 본인의 텀블러를 이용할 경우 음료 금액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다.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호점의 경우

200원, 2호점은 100원, 3호점은 음료 값의 10%, 4호점은 200원이다. 교내 그린캠퍼스 제휴 카페 이외에도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과 같은 카페 브랜드들에서도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격할인, 텀블러 세척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위 지도는 그린캠퍼스 홍보대사가 정리한 카페 별 텀블러 사용 혜택, 고려대학교 주변의 텀블러 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페의 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텀블러를 사용함으로써 돈도 절약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도 할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텀블러를 들고 그린캠퍼스 제휴카페에 찾아가보는 건 어떨까.

그린캠퍼스협의회 Low Carbon Sustainability

대학의 전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저탄소(Low Carbon)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 기반으로 삼고 운영하는대학

| 온실가스 목표관리협의회 |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실무협의체입니다.



| 녹색 성북 그린캠퍼스 협의회 |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란?

본교 에너지·안전팀은 지구 온난화, 온실효과, 이상 기후 등의 현대의 환경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다양한 그린캠퍼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취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그린캠퍼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러한 그린캠퍼스 사업을 홍보하고, 환경을 위한 행동을 이끌어내고자 “홍보대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7월에 1기로 시작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는 2017년 7월 11기를 배출하였다. 방학마다 새로운 구성원으로 채워지는 홍보대사들은 고려대학교를 친환경적인 그린캠퍼스로 만들기 위해 기수마다 다양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홍보대사들은 그린캠퍼스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며, 그 밖에도 환경 보호,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을 직접 기획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현대의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당연해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 정부와 기업 등 사회의 모든 단위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국내의 여러 대학교들 역시 그린캠퍼스 구축 사업을 통해 환경문제에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는 홍보대사들의 활동은 그린캠퍼스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환경이슈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新) 기후체제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 파리협정이 기존 교토의정서와 다른 특징은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 강화(2도 이내에서 1.5도 이내 노력)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선진국·개도국·국빈국 등 모든 국가로 확대 ▶5년마다 상향된 감축목표 제출(진전 원칙) 및 이행 여부 검증(5년마다) ▶2025년 이후 개도국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상향식 감축목표 방식 등이다.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위촉식



2017년 7월 7일 금요일, 고려대학교 에너지·안전팀 김세용 관리처장은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로 활동하게 된 고경욱(지구환경과학과), 김채영(식품자원경제학과), 노한솔(철학과), 박준영(식품자원경제학과), 주이찬(보건정책관리학부), 최가원(한문학과)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7월 10일부터 8월 18일 6주간의 기간동안 홍보대사들은 환경영화제 참여, 탄소 저감 관련 기업 벤치마킹, 유치원 방문교육, 나눔 행사, UCC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 위촉식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홍보대사들



돈도 벌고 환경도 살리는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종류·규모·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등이 정해지는데 현금 또는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www.cpoint.or.kr)에 가입하여 신청할 수 있다.



CO2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
탄소포인트제 참여입니다



KU Green Campus 후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린캠퍼스란 단순히 더운 날씨에 에어컨을 켜지 않는 것 정도로 치부된다. 실제로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소리는 에어컨이나 제대로 켜달라는 말일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에어컨을 작동하고 끄는 프로세스에서 에너지 코리아, 한전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며,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나는 먼저 주변 친구들에게 그린캠퍼스를 홍보했으며, 이를 확장시켜 나눔 행사, 초등 환경교육 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린캠퍼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는 이번이 11기로, 5년이 넘는 단체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그린캠퍼스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 고 경 욱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0기에 이어 11기까지 연임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나에게서 뜻 깊은 활동이었다. 저번 기수에는 처음이라 미숙하고 모르는 부분도 많았지만, 두 번째 활동이다 보니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이번 기수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유치원 교육봉사를 간 것이었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며 환경 교육을 했던 것이 정말 보람차고 좋았다. 그 외에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매일 얼굴을 보며 UCC를 제작하고, 벤치마킹을 가고 정말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았다. 우리 스스로 일을 생각해내고 우리끼리 일을 진행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고, 그린캠퍼스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린캠퍼스 활동이 끝나도 꾸준히 환경을 생각하고 보호해야겠다.

»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 김 채 영

‘환경을 지키자’라는 말이 너무나 만연해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 할 때 쯤 그린캠퍼스는 나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주었다. 내가 그린캠퍼스라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평소의 에너지 소비양상을 성찰하고 고칠 수 있었다. 또한 유치원 환경교육이나 에너지 방문활동은 환경 뿐만 아니라 내게 또다른 가르침을 준 활동이기도 하다. 그린캠퍼스 활동은 방학 동안 의미없는 대학생의 방학을 보낼 뻔한 나에게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다. 고려대학교에서 그린캠퍼스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 박 준 영

평소에 환경실천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나눔행사, UCC제작 등을 기획하고 유치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개선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재고해보았다. 또한 에너지 방문하여 에너지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현직자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앞으로 환경을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에 관심 있는 다양한 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 노 한 솔

처음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로 선정되었을 때,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나 환경 영화제 참여, 나눔행사, 환경 교육 등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자기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에너지 방문 이었다. 내가 전혀 몰랐던 유형의 탄소 배출 저감 사업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공공과 민간 부문을 불문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꼈다.

보다 많은 고려대 학생들이 삶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을 실천하길 바라며, 그린 캠퍼스 홍보대사들의 활동이 그러한 실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 주 이 찬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를 하면서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환경관련 활동, 글로벌 기업 에너지 벤치마킹, 환경영화제 관람, 유치원 환경 교육, 교내 나눔 행사, UCC 제작 등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고 뜻 깊었다. 무엇보다 환경에 관심 많은 홍보대사 친구들과 함께 매일같이 동고동락하며 행사 및 활동들을 기획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생각을 나눴던 순간들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진다. 벌써 활동이 끝나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싶다.

»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1기 | 최 가 원



고려대학교 Green Campus 뉴스레터 제10호



발행인	김세용 관리처장
발행처	관리처 에너지·안전팀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편집인	진상규
편집기자	최가원, 노한솔, 김채영, 고경욱, 주이찬, 박준영
전 화	02-3290-2768
홈페이지	kugc.korea.ac.kr
제 작	지킴커뮤니케이션(02-786-4201)



본 뉴스레터는 친환경적으로 개발 관리된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무알코올 인쇄와 식물성 잉크를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